EMERiCs
이슈분석

2016년 7월 29일
중동부유럽 | [경제] 라트비아

라트비아 인구 통계 및 인구 변화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Morten Hansen 학과장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리가캠퍼스,
라트비아 재정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주요 내용

□ 라트비아는 1991년 독립 이래 25년간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음.

□ 자연증가가 감소하면서 라트비아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라트비아는 비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함.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슈 현황

라트비아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1인당 소득 수준까지 성장하여 경제적 통합을 실현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라트비아가 현재 직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1인당 소득수준을 따라잡아 경제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임.

-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1]은 상당수 라트비아 국민이 해외 이민을 택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임.

더불어 라트비아는 현재 타국으로의 이민자 수가 국내로의 이민자 수보다 많은 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라트비아는 국내총생산을 성장시키는 것 외에도 해외로 유출되는 인구수가 국내 유입되는 인구수보다 많은 현상을 해결해야 함.

-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 라트비아의 노동력은 타격을 입을 것이며, 경제적 통합의 실현 가능성 또한 낮아질 것이기 때문임.

- 더불어 이러한 부정적인 인구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라트비아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 두 가지 문제는 라트비아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노동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라트비아의 2016년 주요 경제 이슈들은 대개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종합하자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는 모두 라트비아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라트비아의 노동력이 감소하였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임.

1) 라트비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유럽연합 회원국 평균의 64%에 달하는 수준으로, 유로스타트(Eurostat)의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중 4번째로 가난한 국가로 꼽힘.

2 원인과 분석

라트비아에서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1989년 구(舊)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실시했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서 기인함.

- 라트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동유럽 국가에서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인구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당시 구(舊)소련 총 서기관(USSR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글라스노스트(개방) 및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경제 개혁 포함)와 관련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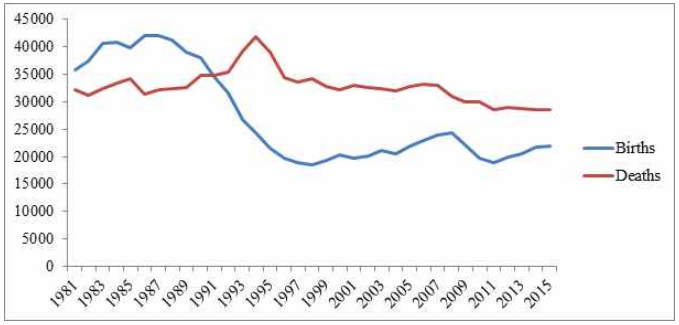
- 이 두 정책이 시행될 당시 발생한 아래와 같은 여러 경제적 위기상황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음.
  - 1985년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영 간의 치킨게임으로 인해 1986년 유가가 폭락하였고 이는 세수의 감수를 초래함.
  -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로 인해 구소련의 경제는 회생이 불가한 수준으로 추락함.

구소련 연방국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자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함.

-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유보하게 되었음.
  - 표1에서 알 수 있듯, 라트비아에서도 이로 인해 출생자 수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함.

표 1. 라트비아 출생자 및 사망자 수(1981-2015)

(단위 : 명)



자료 : 라트비아 중앙 통계국

- 1987년 라트비아의 출생자 수는 42,135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997년 20,000명으로 50%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그 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음.

- 1993년에서 1995년 사이 사망자 수가 이례적으로 상승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사망자 수는 대개 30,000명대에 머무르며 일정하게 유지되었음.
  - 1993년 이후 연간 평균 8,000~12,000명의 인구[2]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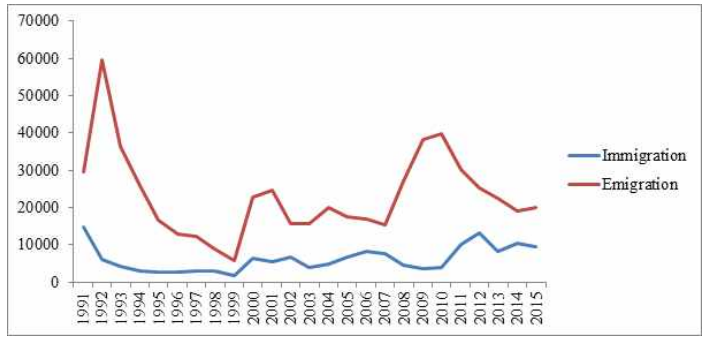
- 1990년대 초반부터 출생자 수가 감소한 현상의 여파가 20~25년이 지난 지금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향후 적어도 20년간 계속될 전망임.

해외로 이민한 수가 국내 이주민의 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라트비아 인구는 22% 가량 대폭 감소하였음.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1991년 라트비아의 독립 이후 해외로의 이민자가 증가한 현상은 노동 시장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표 2. 라트비아 이민자 및 이주민 수(1991-201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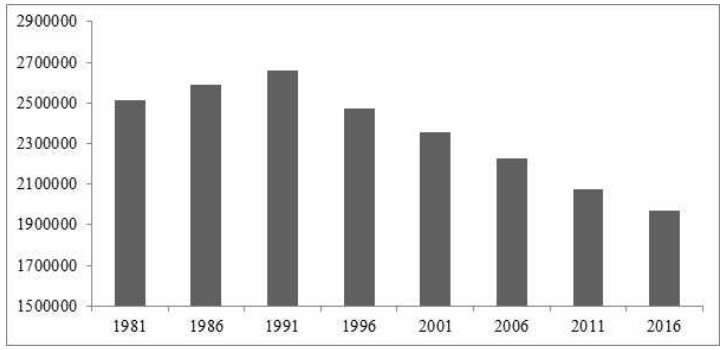
자료 : 라트비아 중앙 통계국

- 해외로 나가는 이민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인구수[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개 그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1991년 독립 이후 라트비아 인구는 22%[4]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임(표 3 참고).

2) 2015년 발표한 라트비아 인구의 약 0.5%에 해당함.
3) 1991년 라트비아 독립 직후 러시아인들이 본국으로 대거 귀국하면서 이민자가 급격하게 늘어남. 2008년 금융 위기가 닥친 이후에는 또다시 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함.
4) 이는 상당한 수치이긴 하지만, 3)에 이어 당시 발생한 이민자들은 독립국이 된 라트비아에 적응하지 못한 러시아 군인들과 퇴역 장교들일 것이라는 추측이 존재함.

표 3. 라트비아 인구 수(1981-2016)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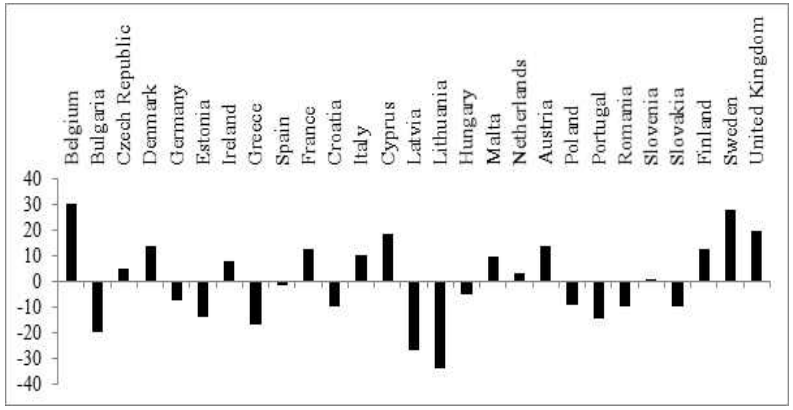


자료 : 라트비아 중앙 통계국, 연초 조사

- 유로스타트(EUROSTAT)가 최근 발표한 출생률과 이주 동향에 관한 통계 자료(표4)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표 4. 유럽연합 28개국[5] 인구 예측(2015-2050년)

(단위: %)



자료 : 유로스타트(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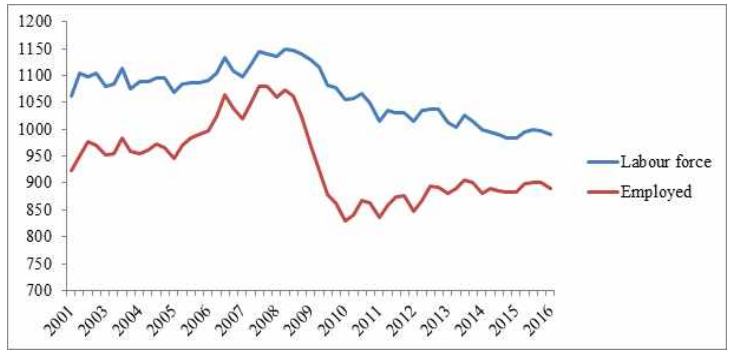
- 자료에 따르면, 라트비아 인구는 2015년부터 2050년 사이 26.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라트비아의 인구 예측 수치는 리투아니아(34.2%)에 이어 최악의 전망임.

5) 129%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한 룩셈부르크는 예외적으로 도표에서 제외함.

- 더불어 라트비아의 인구는 1991년에서 2050년 사이 백만 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1991년 라트비아 인구가 266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굉장한 감소 수치임.

표 5. 분기별 라트비아 노동 인구와 취업 인구관련 주요 일지(2001-2016)

(단위: %)



자료 : 라트비아 중앙 통계국, 계절변동조정자수.

- 노동 인구는 2008년 2분기에 115만 명, 취업 인구는 2007년 3분기에 108만 명으로 최고치에 달했으며, 두 경우 모두 금융 위기 직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금융 위기 동안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노동 인구의 유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 인구와 취업 인구는 매우 급격하게 감소했음.

- 2016년 현재 노동력은 2008년 대비 14%가 감소한 99만 명에 불과하며, 취업률은 불과 8년 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GDP가 어떻게 변화하든 라트비아는 향후 과거보다 더 적은 노동력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하게 되었음.
  -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라트비아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라트비아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1인당 소득 수준에 도달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라트비아 노동 시장은 인구 변동과 이민자 수의 변동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임.

3 전망과 시사점

라트비아는 다른 국가로의 이민이 늘어나는 추세를 바로잡기 어려울 것임.

- 라트비아의 임금 수준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따라서 타 국가로 이민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정부가 바로잡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해외로 유출되는 이민자의 수가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수보다 많게 나타나는 현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라트비아 노동 시장에 가해지는 부담 또한 계속해서 증가함.
  -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라트비아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1인당 소득 수준에 도달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이민자 수의 중가는 계속해서 경제통합을 둔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인구 변화의 여파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악순환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라트비아 정부가 라트비아로 재이민을 촉진하기 위해 몇몇 조치들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가 있으나 그 효과의 한계가 드러남.
  - 이는 여전히 라트비아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비해 임금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설상가상으로, 민족 정책이 국민 상당수에 매우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 이슈가 되는 라트비아에서는 구소련 연방 회원국들의 이주민들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음.

인구의 감소로 라트비아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더불어 라트비아는 1991년 독립 이래 매년 인구의 자연적 증가[6]를 거스르는 이례적인 인구 발전사를 지나왔음.
  -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 성장하여 노동시장에 유입될 때까지 대략 20~25년이 소요됨
  - 때문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라트비아의 인구 구성은 최근에 이르러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적은 수로 유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라트비아의 인구수의 문제는 적어도 20년 또는 그 이상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6) 자연적 증가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능가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함.

- 이처럼 라트비아가 겪고 있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며, 라트비아 내 노동 가능 인구의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결국 이들이 받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수록 국가 예산에 있어서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다행히도 숙련된 고학력의 노동 인구는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이고, 비(非)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노동 인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통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MERiCs

출처
라트비아 중앙 통계국(Central Statistical Bureau of Latvia, www.csb.gov.lv)
유로스타트(Eurostat, ec.europa.eu/eurostat)